

☆ 서정문학을 알면 ...

서정문학이 어떤 뜻인지... 무엇을 말하는지 안다면 ...

늘 우리를 괴롭혔던 고전시가 공부와 현대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로 해결된다.....

모든 시에는 반드시 시적화자와 대상이 존재한다. 그래서 시적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을 찾고 화자는 그것에 대해 자기의 느낌을 적은 글..... 그래서 시공부는 외울 필요가 없는 것이고 ... 그렇게 외우면서 공부하는 것이 제일 불쌍한 것이지...

오늘도 공부 방법을 바꾸지 않았지 ?

그렇게 한 주 가고 본인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가짜 최면에 빠져... 어찌보면 또 한 달 지나가고....또 한 달... 그럴수록 너 겁나잖아?.... 그렇지...!!

자신에게 솔직해봐.....작년하고 똑같이 하는데 어떻게 나아지겠니 ? 바뀔거라면 작년에 이미 바뀌고도 남지 않았을까 ? 남다른 내일을 꿈꾸면서 남다른 오늘을 보내지 않는데.... 왜 너는 교재, 학원, 집, 선생님, 독서실 그런 세상탓만 할거니 ?

안녕하세요. [김현종 T입니다.]

오늘은 [⑤ 번째] 시 문학 분석으로 또 다가갑니다.

이 시문학 분석은 역시 1등급 학생들은 패스하시고
어설픈 2등급과 3-5등급 이하 친구들을 위한 것입니다.

반드시 ⑤번째 칼럼을 읽기 전에 ①~④번 칼럼을 먼저 읽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순서대로 보고 오셔야 효과가 큼니다. !!

이 칼럼은 대치동 제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재수생들 요청으로
복습용으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수업버전으로 하겠습니다.

흥미와 이해를 위해 다소 과장과 비약이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 자, 시(서정문학)를 만나면 뭘 찾는다 ?

= 네 선생님 당연히 대상을 찾습니다.

= 좋아.... 크게 따라한다 !!!! 시를 만나면 ? 뭘 찾는다 ?.....

= 네, 선생님 !! 바로 시적화자가 바라다 보는 대상을 찾습니다.

= 그것만으로 되겠나 ???

= 아닙니다. 각 줄마다 숨겨진 대상에 대한 정서와 시적화자의 태도를 찾아
야 합니다.

= 오케이.....바로 그거면 무조건 통과야..... 이제 가보자고.....!!

인터넷 수능 B형 시부터 해보자고....

조금전 대상을 찾는다.... 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시문학 행동강령입니다.

오늘은 EBS 인터넷 수능 시문학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어떻게 공부하는 지에 대해 알려드렸으니 학생과의 대화체 설명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작품 분석 후에 바로 문제 풀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다음은 꼭 외치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시문학 공부를 암기위주로 했다.... = 바보처럼 공부했군...
2. 시를 스스로 분석하기 보다는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주입식으로 필기하고 밑줄 긋고... 일제 강점기, 60년대 현대 산업화 시대, 저항시인, 지식인의 고뇌, 소외된 민중, 80년대 군부독재... 이렇게 공부한 것이 시문학 답게 공부한 시 공부라 생각했다....
= 역시 바보처럼 공부했군...
3. 한 편의 시를 배우면서 그 시인과 연계된 다른 작품들의 특징속에서 또는 타 시인의 유사한 작품에서 억지로 선생님이 특별히 강조하는 특정 지식을 배우면서 뿌듯해 했다면 = 끝까지 바보처럼 공부했군...

더 많지만 너무 바보가 되는 것 같아서 이만 줄입니다.

오늘은 김소월, [삭주구성] , 나태주, [대숲 아래서]

물로 사흘 배 사흘
먼 삼천 리
더더구나 걸어 넘는 먼 삼천 리
삭주구성*은 산을 넘는 육천 리요

썩판 처음 보는 시를 만나면 반드시 시적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일단 시적화자는 삼천리 밖에 있는 것을 보고 있나봅니다. 물도 건너야 하고 배로도 가야 하는 곳... 구체적으로 삭주구성.. 즉 고향입니다. (본문 주에서 고향이라고 밝힘)

== 특별히 고향에 대해 시적화자 본인 입으로 느낌이 어떻다라는 얘기는 없죠?...또 태도도 없죠 ?.... 물론 심리적으로 참 먼 곳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심리적 정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머물지 말고 바로 갑니다....

물 맞아 함빡히 젖은 제비도
가다가 비에 걸려 오노랍니다
저녁에는 높은 산
밤에 높은 산

제비도 내 고향으로 가다가 너무 멀어서 비를 맞고 다시 올 정도로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제비는 먹을 것을 찾으러 갔던 거지... 고향 간 것은 아니죠 ?...앞에서 이런 것을 뭐라 했죠 ?... 네 감정이입니다.

산이 높아서 나도 못가고 제비도 못가고.... 부정적 현실 (장애물)

삭주구성은 산 너머
면 육천 리
가끔가끔 꿈에는 사오천 리
가다 오다 돌아오는 길이겠지요

고향은 참 멀다라는 느낌(정서)입니다. 그런데 꿈에서는 조금 가깝습니다. 그러나 역시 꿈에서도 고향은 멍니다.... 비록 정서는 숨겨져 있지만 당연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멀어서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그리움이라 보면 됩니다.

서로 떠난 몸이길래 몸이 그리워
님을 둔 곳이길래 곳이 그리워
못 보았소 새들도 집이 그리워
남북으로 오며 가며 아니합디까

그런 삭주구성과 그 곳에 여러 것들이 그림답니다. 직접 정서가 노출되었습니다. 새들도 집이 그림다고 했는데당연히 감정이입이죠... 그런 새들도 가는데 우리는 못간다...(대립적 심상이죠...)
남북으로 오며가며 하고 싶은 시적화자의 정서가 노출되었습니다.

들 끝에 날아가는 나는 구름은
밤쯤은 어디 바로 가 있을 텐고
삭주구성은 산 너머
면 육천 리

저기 들판 끝으로 날아가는 구름도 밤쯤이면 어딘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구름도 고향쪽으로 가는데 정작 고향에 가지 못하는 자신과 대

립적으로 나왔다고 봐야겠네요... 대립적 심상...

즉 나는 못가는데 구름은 간다... 부러움의 정서 표출이죠...

=====

김소월의 [삭주구성] = 고향에 대한 그리움...(대상+ 정서) 끝입니다.

자 이제 (나)시 보겠습니다.

바람은 구름을 몰고
구름은 생각을 몰고
다시 생각은 대숲을 몰고
대숲 아래 내 마음은 낙엽을 몬다.

자 대상을 찾아봅시다. 시적화자가 보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에는 구름을 봅니다....그러다 내 가슴 속 생각을 봅니다.

내 생각은 다시 대숲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대숲 아래에서 낙엽을 모으는 내 마음을 보고 있네요...

이게 바로 대상입니다. 낙엽을 몰고 있는 내 마음...

밤새도록 댓잎에 별빛 어리듯

그슬린 등피에는 네 얼굴이 어리고
밤 깊어 대숲에는 후둑이다 가는 밤 소나기 소리.
그리고도 간간이 사운대다* 가는 밤바람 소리.

시적화자는 대숲 아래에서 낙엽을 몰면서 밤새도록 별빛이 만들어내
대나무 꺾질에 비치는 너의 얼굴이 대상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밤에

소나기 오고 바람 부나 봅니다.

=== 아직 특별한 정서는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나갑니다.

어제는 보고 싶다 편지 쓰고
어젯밤 꿈엔 너를 만나 쓰러져 울었다.
자고 나니 눈두덩엔 메마른 눈물자국,
문을 여니 산골엔 실비단 안개.

그런 대상에 대해 보고 싶다는 정서가 노출됩니다. 또 꿈에서 만나 울기까지 합니다. (가)시는 꿈에서도 가다가 돌아오는데... 일어나보니 진짜로 울었나봅니다. (시적화자의 태도)...혹시나 문앞에 네가 있을까 봐서 문을 열어보지만 역시나 산안개 뿐..... (아쉬움의 정서죠..)

모두가 내 것만은 아닌 가을,
해 지는 서녘구름만이 내 차지다.
동구 밖에 떠드는 애들의
소리만이 내 차지다.
또한 동구 밖에서부터 피어오르는
밤안개만이 내 차지다.

가을 날 모든 것을 가지고 싶은 시적화자겠죠...그러나 모두가 내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옆에 모든 것이 다 있어도 결국 그리운 너가 없기 때문이죠... 너는 없는데 내 옆에는 서녘구름이 있다.... 너는 없는데 애들만 있다... 너는 없는데 밤안개는 있다... (이런 것들 다 있는데 ... 정작 네가 없으니 얼마나 허전하고 외롭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해야지... 이것들은 시적화자를 위로해주는 사물들.. 인터넷이나 EBS 해설

처럼 이렇게 이해하면 안됩니다. == 정서와 연관지으면 쉽게 해결됩니다.)

하기는 모두가 내 것만은 아닌 것도 아닌
이 가을, / 저녁밥 일찍이 먹고
우물가에 산보 나온 / 달님만이 내 차지다.
물에 빠져 머리칼 행구는
달님만이 내 차지다.

하기는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현재 내 것이 아닌 모든 것도 생각해 보면 내 것일 수 있다. 지금 이곳을 비추는 달님도 내 것이고, 너에 대해 그리워하지만 너에 대한 그리움의 생각도 사실은 내 것이다....

(너는 현재 내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부정했으니...너를 그리워 하는 것은 바로 내 것이다...정도로 해석 가능)

=====

나태주, [대숲 아래서] = 너에 대한 그리움 (대상+ 정서).. 끝...

(가)시와 (나)시는

김소월의 [삭주구성] = 고향에 대한 그리움...(대상+ 정서) 끝입니다.

나태주, [대숲 아래서] = 너에 대한 그리움 (대상+ 정서).. 끝...

....

이렇게 이 두 줄로 문제 풀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시문학을 공부하면서 알고 있는 용어정리 및 문제 출제 유형만 알고 있다면 내용, 형식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문제 풀이는 생략합니다.

문제는 크게 대상관련, 화자관련, 내용관련, 형식관련, 감상관련...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출제됩니다. 외우려 하지말고 이해하면 자동으로 외워집니다. 매번 나온 보기가 또 나옵니다. 정확하게 용어정리하고 쌤판 모르는 시가 나와도 위처럼 해석하고 분석하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으로 정답을 고르면 됩니다. 파이팅...!!

이처럼 시문학은 시에 대해 배경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시적화자에게 주어진 대상을 찾아나가는 것이 시문학을 분석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몇 번 거치면 시문학은 아주 쉬운 영역이 됩니다. 혹시나 시문학을 어렵게 생각하는 3-5등급 친구들을 위한 칼럼이니 반복 정독해주시기 바랍니다. 1-2등급은 지나가시면 됩니다.

열공 !!